

16世紀 國語의 Hiatus 回避現象

— 翻譯朴通事·老乞大를 中心으로 —

吳 鍾 甲

<目 次>

- | | |
|------------------|-----------------------|
| 1. 序 論 | 3. Hiatus의 發生과 그 回避現象 |
| 2. 16世紀 國語의 母音體系 | 4. 結 論 |

1. 序 論

1.1. 本稿는 16世紀 國語의 Hiatus回避現象을 考察함을 目的으로 한다.

16世紀 國語라고 하더라도 많은 資料들이 있어 이들을 全部 涉獵하여야만 16世紀 國語 hiatus回避現象의 本質이 究明될 수 있겠으나, 本稿에서는 그럴만한 時間的 餘裕를 가지지 못하여, 우선 16世紀 前半의 文獻으로 推定되는 崔世珍의 翻譯朴通事와 翻譯老乞大의 資料를 中心으로 hiatus回避現象을 考察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두 文獻에 限定시킨 또 하나의 理由는 이들의 著者가 音韻理論에 造詣가 깊은 譯學者였다는 점과 이들 文獻이 日常會話 爲主의 國語의 表記라는 점을 볼 때 hiatus回避現象이 다른 어떤 文獻보다도 잘 反映되었으리라는 假定 때문이다.

1.2. Hiatus란 周知하는 바와 같이 두 개의 母音이 音節을 境界로 하여 連結되는 것으로, 두 母音이 그 사이에 音節의 境界를 두지 않는, 즉 두 母音이 한 音節로 取扱되어 主音과 副音의 關係에 놓이는 二重母音과는 區別된다(李崇寧, 1954: 428 이하 참고).

2. 16世紀 國語의 母音體系

許雄(1975: 371)에 依하면, 15世紀 中期의 國語 母音 音素로서, [單母音]

<2>嶺南語文學(第5輯)

/ i i̇ i̇ u /
/ ə ʌ o /
/ a /

[半母音]

/ j j̇ w /

[二重母音]

/j/系 { 上昇的 : / jo ja ju jə /
 下降的 : / ʌj ij oj aj uj əj /

/w/系(上昇的) : / wa wə /

[三重母音]

/j/系 : /joj jaj kuj jəj/

/w/系 : /waj wəj/

와 緊張二重母音 /jo ja ju jə/를 假定하고 있는데, 1460—80年 사이에 緊張母音은 消滅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許 雄, 1975 : 460), 16世紀의 國語母音體系는 15世紀 中期의 母音體系에서 緊張母音(i̇ i̇ jo ja ju jə)를 除外시킨 것이 된다.

그리고 李 基文(1961, 1972)에 依하면, 16世紀 國語는 15世紀의 國語와 함께 後期 中世 國語로 다루고 있어, 15世紀 國語의 母音體系와 16世紀의 그것을 同一하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李 基文(1972 : 101—129)에 提示된 母音體系를 보인다.

[單母音]

/ i i̇ u /
/ ə o /
/ a ʌ /

[半母音]

/ j w /

[二重母音]

/ ya yə yo yu /
/ wa wə wi /
/ ʌy ay əy oy uy iy iy /

以上에 提示한 두 學者의 母音體系를 比較하면,

單母音의 경우는 다같이 7單母音을 認定하고 그 音價까지도 同一하지만 各 母音의 辨別의 資質에 있어서는 差異를 보이고 있는데, 本稿에서는 許

雄 教授의 假定에 따르기로 한다. 그 理由는 [+round, +back]의 資質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半母音 w가 單母音과 結合하여 上昇의 二重母音을 構成하는 경우를 보면, /a, ə, i/와는 그 結合이 可能하여 二重母音 /wa, wə, wi/를 이루지만, /i, ʌ, o, u/와는 그 結合이 不可能함을 보는데, 이와 같은 事實은 이들 두 群이 어떤 資質(feature)에 있어 自然部類(natural class)를 形成함을 示唆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筆者는 이들 두 群의 對立을 前舌:後舌의 對立關係로 보고 있는데, 이를 許 雄 教授의 體系에서는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뒤에서도 보게 되겠지만(3·2·1. (2) 참조) /o, u/는 同一한 音韻過程을 겪고 있는데, 이를 李 基文 教授의 體系로서는 明快하게 說明할 수가 없다.

半母音의 경우는 모두 /j w/를 假定하고 있어 別問題가 없다.

二重母音의 경우는, 李 基文 教授의 體系에서 /wi/와 /iy/의 둘을 더 認定하고 있는데, 이에 對해서는 崔 世和(1977)에서 緻密한 論證을 거쳐 15世紀 國語의 重母音體系를 아래와 같이 提示하고 있다. 本稿에서는 이를 利用하고자 한다.

二重母音 $\left\{ \begin{array}{l} \text{上昇的} \left\{ \begin{array}{l} /j-/系: /jʌ jɪ ji jo ja ju jə/ \\ /w-/系: /wa wə wi/ \end{array} \right. \\ \text{下降的} /-j/系: /vʲ iʲ ij oj aj uj əj/ \end{array} \right.$

三重母音에 對해서는 李 基文 教授는 特別히 提示한 것이 없는 듯하며, 崔 世和 教授는 許 雄 教授의 假定과 一致한다.

本稿에서 取할 16世紀 國語의 母音 體系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單母音]

/i ə i u/
/a ʌ o/

[半母音]

/j w/

[二重母音]

上昇的 $\left\{ \begin{array}{l} /j-/系: /jʌ jɪ ji jo ja ju jə/ \\ /w-/系: /wa wə wi/ \end{array} \right.$
下降的 /-j/系: /ʌj ij ij oj aj uj əj/

[三重母音]

/joj jaj juj jəj/
/waj wəj/

다음에 16世紀 母語 國音의 辨別의 資質表를 보인다.

	i	ə	ɪ	u	a	ʌ	o	j	w
syllabic	+	+	+	+	+	+	+	-	-
front	+	-	-	-	-	-	-	+	-
back	-	-	+	+	-	+	+	-	+
high	+	+	+	+	-	-	-	+	+
low	-	-	-	-	+	+	+	-	-
round	-	-	-	+	-	-	+	-	+

3. Hiatus의 發生과 그 回避現象

3.1. Hiatus가 露呈되는 樣相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니,

첫째는 單一形態素 內部에서의 두 母音의 連結—이를테면, ‘서볼>서울’과 같은 경우—로서 15世紀나 또는 그 以前에는 hiatus를 露呈하지 않던 語彙가 母音間에서 子音을 削除시킨 結果 hiatus를 露呈시킨 것으로, 이는 共時的 音韻現象을 記述하고자 하는 本稿에서는 論外가 된다.

둘째는 形態素와 形態素의 結合上에서 露呈되는 두 母音의 連結로서, 이는 다시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니, ① 母音으로 末音을 삼는 形態素에 母音으로 始作되는 形態素가 結合될 때 露呈되는 두 母音의 連結—이를테면 ‘머리+에’와 같은 경우—로서 hiatus의 거의 大部分이 이 경우에 該當되는 것으로, 이것이 本稿의 主對象이 된다. ② 그리고, 子音으로 末音을 삼는 形態素에 母音으로 始作되는 形態素가 結合되든지 혹은 母音으로 끝난 形態素에 子音으로 始作되는 形態素가 結合될 때 共時的인 어떤 音韻規則(이를테면, 子音削除規則等)이 適用되어 hiatus를 露呈하는 것—이를테면, ‘언제+부터→언제+우터’와 같은 경우—이 그 둘째다. 이 경우에는 hiatus回避現象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은 hiatus回避를 爲한 諸規則이 適用된 然後에 子音削除規則等을 適用시킴으로서, 즉 規則의 順序매김으로 解決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 子音削除規則等도 相當히 複雜한 樣相을 띠는 것이 豫想되나 hiatus回避現象을 爲한 規則들이 모두 適用된 然後에 이들이 適用되어 hiatus回避現象에 直接的인 影響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本稿에서는 이들을 懵懵그려 子音削除規則 하나로 取扱해 두하고자 한다.

언제 + 부터

(hiatus회피를 위한 제규칙) ———

(자음 삭제 규칙)	언제 + 부터
(표면형)	언제 + 부터

3·2. Hiatus回避現象

여기서는 16世紀 國語에 나타난 hiatus回避現象을 具體的인 例를 들어 考察하기로 한다.

그런데, hiatus를 回避하는 方法으로는 世界의 여러 言語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國語의 경우에도 母音間에 子音(半子音)을 添加시키는 경우와, 두 母音中 어느 한 母音이 轉移되는 경우와, 두 母音中 어느 한 母音을 削除시키는 경우의 셋을 생각할 수 있다.

3·2·1. 子音(半子音) 添加

16世紀 國語에서 hiatus回避를 爲해 添加된 子音(半子音)에는 j, w, n, l의 넷이 있다.

(1) j 添加

- | | |
|-----------------|----------------|
| a. 窠히여(老 33) | 해여(老 47, 朴 19) |
| 밭피여(老 79) | 릭야(老 116) |
| 씩야(老 58) | 내여(老 55) |
| 빅여(朴 114) | 딕리여(朴 83) |
| 딕엿던(朴 21) | 씩여(朴 53) |
| 천]여(老 58) | 보내여(老 87) |
| 딕얏느니(老 72) | 꿔여(朴 14) |
| 날회여(朴 20) | 도익엿느니(朴 66) |
| 물어디여(老 51) | 따디여(老 2) |
| 꺼여(朴 139) | 브리여(朴 15) |
| 빌지여시던(朴 70) | 드리여(朴 60) |
| b. 이크요리라(朴 109) | 빃내요미(朴 100) |
| 뵤운(朴 94) | 부빅요물(朴 76) |
| 췌요니(朴 67) | 췌요물(老 62) |
| 혜요니(老 23) | 딕요물(朴 19) |
| 딕요물(老 74) | 더딕요라(朴 2) |
| c. 외예(老 24) | 술위예(朴 25) |
| 글에예(朴 56) | 비게예(朴 58) |
| 들애예(朴 59) | 딕게예(朴 60) |

기뤼예(朴 76)	빅예(朴 77)
후세예(朴 100)	시테엿(朴 59)
허리예(老 54)	스시에(老 43)
만리예(老 87)	우리예(老 73)
요스이에(老 16)	구이예(老 64)
천리엿(老 87)	兩夷에서(老 31)
보십고삭예(朴 18)	덜시예(老 7)
머리예(朴 30)	부리예(朴 30)
넌피예(朴 63)	가지엿(朴 53)
칼그니예(朴 63)	
d. 아히야(老 91)	풀리야(朴 62)
e. 햅야(老 103)	햅야놀(老 89)
햅야라(老 67)	햅야다가(老 58)
햅야든(老 6)	햅야도(老 139)
햅야다(老 117)	햅야는가(老 51)
상햅야고(老 60)	

위의 例에서 보면, (l. a)의 경우는 앞 形態素의 末音이 i나 [-j]系 下降의 二重母音이고 여기에 副詞形語尾 'a/ə' 또는 過去時制補助語幹 'as/əs'이 連結된 경우이고, (l. b)의 경우는 i(j)에 插入母音 'o/u'가 連結된 것이며, (l. c)의 경우는 i(j)에 處所格助詞 'əj'가 連結된 것이며, (l. d)의 경우는 i(j)에 呼格助詞 'a/ə'가 連結된 경우로서 (l. a~d)의 모든 경우에 hiatus를 回避하기 爲해서 半子音 j가 添加되었다. 그런데 앞 形態素 末音이 i인 경우에는 半子音 j가 添加되어 hiatus를 回避하려는 것은 當然하다 하더라도 이미 앞 形態素 末音이 j로 끝난 경우에는 hiatus가 發生될 수 없을 듯한데도 여기 다시 j를 添加하여 hiatus를 回避하였다는 것은 理解할 수가 없다. 이에 對해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j)系가 下降의 二重母音이 아니라 모두 前舌性을 지닌 單母音이 아닐까 하고 疑心해 볼 수도 있으나 이들이 單母音이 아니라는 事實에 對해서는 이미 많은 學者들이 밝혀 놓은 事實이므로 再論의 餘地가 없으며, 둘째, '이, 애, 예……' 등의 'l'가 j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i가 아닐까 하는 假定도 可能하나, 이들 母音이 하나의 音節을 이룬이 틀림없을진대, 한 音節 안에 두 개의 單母音이 들어 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세째로 생각할 수 있는 假定은 自然的으로 '이, 애, 예……' 등이 二重母音을 이루긴 하되, 'l'가 半子音

으로서의 性格보다는 音節 副音으로서의 半母音의 性格이 強한, 音聲學的으로는 [i]로 表記될 수 있는 性格의 分節임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自然的으로 다음에 오는 母音과 hiatus를 形成하게 되고, 다시 이를 回避하기 위하여 半子音 j가 添加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i와 j는 音韻論적으로는 하나의 音素 /j/를 이루지만, 音聲學的으로는 [i]는 보다 母音의(半母音)이요, [j]는 보다 子音의(半子音)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解釋은 이미 崔世和(1977)에서도 試圖된 바 있다.

그럼 다음에서는 위의 例(l. a~d)에 適用될 音韻規則을 보이기로 한다.

$$\phi \rightarrow j / \left\{ \begin{matrix} i \\ j \end{matrix} \right\} + \text{---} \left[\begin{matrix} v \\ -\text{front} \end{matrix} \right] \dots\dots\dots(1)$$

(l. e)의 경우에는 “ㅎ—”에 母音으로 始作된 接辭가 連結될 때 일어나는 hiatus回避現象인데,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16世紀 國語의 音韻現象에서는 “·”의 前後에 母音이 連結되어 hiatus가 發生될 때는 언제나 “·”가 削除되어 hiatus를 回避하는데도 不拘하고, 이 “ㅎ—”의 경우에는 半子音 j가 添加된다. 그러므로 이 “ㅎ—”는 例外的인 것으로 다루어 져야 하며, 語彙項目에 이와 같은 音韻論的 特徵이 明記되어야 할 것이다. 즉 뒤에서 論議하게 될 規則 (15)는 適用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規則이 適用되어야 한다.

$$\phi \rightarrow j / v] \text{stem} [h \Delta -] + \text{---} a \dots\dots\dots(2)$$

(2) w 添加

- | | |
|---------------|-------------|
| a. 보와(老 87) | 보와셔(老 87) |
| 보와라(朴 123) | 나토와(朴 100) |
| 밭고와(老 107) | 맛고와도(老 129) |
| 맛보와(朴 70) | 마초와(朴 106) |
| 나소와(朴 36) | 주워(老 87) |
| 전주워(朴 76) | 두워(老 109) |
| 거두워(老 29) | 쑤워(老 106) |
| 머추워(老 140) | |
| b. 직조엿(朴 124) | 분토애(朴 128) |
| 화로애(老 123) | 오경두애(老 125) |
| 미수애(朴 12) | 례부애(朴 14) |
| 후애(朴 16) | 인즈푸애(朴 38) |
| 류엿(朴 72) | 수애(朴 121) |

(2. a.)의 例들은 앞 形態素의 末音 o, u에 a/ɔ로 始作되는 接辭가 連結될 때는 hiatus回避를 위해 半子音 w가 添加됨을 보여 주는데, (2. b.)의 例에서는 같은 音聲連結인데도, 半子音 w가 添加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w가 添加되는 경우는 語幹이 用言이라는 範疇化가 必要하다. 그런데 筆者가 調査한 資料에 依하면 “주어(朴 19), 쓰아도(朴 109), 두었다(朴 123)” 등과 같은 w가 添加되지 않는 例들도 發見되는 것으로 보아 이 w의 添加는 任意的인 現象으로 생각된다.

다음에 w 添加現象을 規則으로 보인다.

$$\phi \rightarrow w/c \begin{bmatrix} o \\ u \end{bmatrix}]_{V.A.} + \text{---} \begin{bmatrix} a \\ \text{ə} \end{bmatrix} \text{ (opt).....(3)}$$

그런데 앞의 (1)의 j 添加와 (2)의 w 添加의 경우에 있어서 이들의 音聲環境을 보면, j 添加의 경우는 그 앞에 i(j)가 있고, w의 경우는 o, u가 있어 各各 前舌性[+front]과 圓唇性[+round]에 依한 同化作用으로 생각할 수 있을 듯도 하나, 이는 同化作用과는 區別되는 것이다. (金亨奎, 1963 : 54에 서는 j 添加를 同化作用으로 본다.)

D. Jones(1957 : 217)는 同化作用에 對해서,

assimilation is defined as the process of replacing a sound by another sound under the influence of a third sound which is near to it in the word or sentence.

라 하였고,

S. A Schane(1973 : 49)은,

In assimilatory processes a segment takes on features from a neighboring segment.

라고 하였으므로, D. Jones의 sound는 Schane의 segment에 該當됨을 알 수 있다. 더구나 Jones 自身도 sounds에 對한 註釋(Jones, 1957 : 1)에서,

also called 'phones' or 'linear' or 'segmental' features of speech.

라고 하였으므로 sound = segment임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問題가 되는 同化作用 云云은 否定的 對答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理由는, 이를테면, '씨+어→씨여'와 '주+어→주워'에서 이들이 前舌性(i)과 圓唇性(u)에 依한 順行同化라면 接辭 ɔ는 jə 또는 w가 될 것이 아니라 “takes on features from a neighboring segment”하여 各各

ə+前舌性⇒i, ə+圓唇性⇒u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따져 볼 때 j와 w의添加가 順行同化일 可能性은 排除된다. 그렇다면 j와 w의添加는 무슨理由 때문일까? 이는 前舌母音 i(j)가 非前舌母音으로 移行하는 過程에서 寄生한 glide가 굳어져 j가 되고, 圓唇母音 o, u역시 그 뒤의 非圓唇母音으로 移行되는 過程에서 寄生된 glide가 굳어져 w가 되었다고 解釋된다. 그런데 두 母音의 連結 過程에서 glide가 寄生된다는 事實 自體가 發音을 圓滑하게 하기 위한 現象이므로 이는 hiatus回避現象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밝혀 둘 일은 hiatus回避現象으로서의 j의添加는 이미 널리 알려진 事實이지만, w의添加에 對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이 w의添加가 崔世珍 個人의 發音 習慣 때문이 아닌가 하고 疑心할 수도 있으나 筆者의 調査한 바에 依하면 宜祖版 小學諺解에도 hiatus回避를 위한 w添加의 例를 볼 수 있다.

마초와(小 1 : 6)	두위(小 2 : 25)
모도와(小 2 : 69)	보와(小 4 : 8)

그리고 15世紀의 國語에서도 hiatus回避를 위한 w添加 現象이 崔世和(1977 : 22)에 報告되어 있는데, 이러한 事實들을 비추어 볼 때 hiatus回避를 위한 w添加는 비록 文獻에 따라 表記上의 差異는 있을지 몰라도 一般的인 音韻現象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3) n 및 l 添加

- | | |
|--------------|------------|
| a. 거귀논(老 72) | 이논(老 31) |
| 나논(老 40) | 우리논(老 84) |
| 늑뉘세논(老 81) | 어미논(老 32) |
| 고로논(老 26) | 가운더논(朴 8) |
| 모피논(朴 18) | 금쇠논(朴 36) |
| 기르마논(朴 55) | 아래논(朴 59) |
| 가히논(朴 86) | 그논(朴 96) |
| 류가논(朴 49) | |
| b. 우리를(老 94) | 너를(老 11) |
| 던하를(老 9) | 공부를(老 134) |
| 너희를(老 94) | 아희를(老 90) |
| 던호를(老 108) | 고기를(老 41) |
| 이바더를(朴 2) | 비두리를(朴 9) |

- | | |
|------------|-----------|
| 후를(朴 18) | 저희를(朴 19) |
| 너를(朴 21) | 차더를(朴 24) |
| 나를(朴 36) | 히를(朴 65) |
| 은혜를(朴 115) | |

위의 (3. a)는 體言에 主題格助詞가 結合된 것이고, (3. b)는 體言에 目的格助詞가 結合된 경우로, 이들은 末音이 母音인 形態素에 各各 Λ/i 로 始作되는 助詞가 結合될 때 hiatus가 發生하므로 이를 回避하기 위해 n과 l을 添加시킨 것으로, 이 병진(1976 : 78)과 S. B. Cheun(1975 : 42)에서는 各各 公明음복사구칙(Sonorant copying rule)과 Sonorant Reduplication rule로 부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이들 助詞와 同一한 모습을 한 冠形詞形語尾 $-an/-in$ 과 $-\Lambda l/-il$ 이 母音으로 끝난 形態素 뒤에 連結될 때는 n 혹은 l이 添加되지 않고 Λ/i 가 削除될 뿐만 아니라, 그 外의 경우에도 母音의 前後에 連結되는 Λ/i 는 削除되는 것이 一般의이다. 그러므로 이 n 및 l의 添加는 主題格助詞와 目的格助詞의 結合時에 限定되는 範疇化가 必要하다.

이를 規則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phi \rightarrow \left[\begin{matrix} n \\ l \end{matrix} \right] / [V]N. + \text{---} \left\{ \begin{matrix} \Lambda \\ i \end{matrix} \right\} \left[\begin{matrix} n \\ l \end{matrix} \right] \# \dots\dots\dots(4)$$

3.2.2. 母音轉移

여기에는 i가 j로 轉移되는 경우와 o, u가 w로 轉移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4) i→j

- | | |
|-------------|---------------|
| a. 네(老 137) | 니(老 53) |
| 때(老 37) | 뎡시뎡(老 135) |
| 째(老 18) | 작되(老 37) |
| 人家l(老 19) | 성뎡(朴 1) |
| 계괴(朴 47) | 은뎡괘(朴 80) |
| 지괴(朴 92) | 부제(朴 93) |
| 왕겨(朴 117) | 훈괘(一座, 朴 138) |
| 감되(朴 130) | 손지(朴 14) |
| 양지(諺 99) | 스지(朴 56) |
| 경지(차 61) | 창지(朴 109) |

- | | |
|--------------|-------------|
| b. 나라(老 82) | 커니(老 2) |
| 닌고(老 7) | 긔라(老 96) |
| 뚜개로라(老 15) | 당개로니(老 88) |
| 조세신고(朴 15) | 립취오(朴 33) |
| 방취오(朴 78) | 안좌위오(朴 55) |
| 섬둥지오(朴 56) | 니쇼위라(朴 65) |
| c. 재디(老 94) | 재리오(老 99) |
| 젠(宿老 99) | |
| d. 브르려(老 75) | 시겨(老 59) |
| 움겨(老 137) | 브려(老 139) |
| 즐겨(老 92) | 머겨도(老 111) |
| 고터(老 52) | 드려(老 26) |
| 브려서(老 33) | 드려(老 14) |
| 너기샤(老 3) | 거스려(老 128) |
| 가져(老 69) | 이서셔(老 54) |
| 터(老 77) | ㅁ투샤(朴 1) |
| 진네터(朴 1) | 인터(朴 6) |
| 의론항저라(朴 2) | 맞더(朴 6) |
| 쇼셔(朴 18) | 브터(朴 21) |
| 짓글혀(朴 36) | 빋겨(朴 41) |
| 버르려(朴 43) | 버려(朴 47) |
| 브뎃논더(朴 54) | 꾸며(朴 58) |
| 소겨(朴 66) | 즐겨(朴 68) |
| 고덕(朴 73) | 베혀(朴 76) |
| 터든(朴 98) | 죽겟느니(朴 135) |
| e. 이쇼터(老 19) | 머규물(老 138) |
| 니르샤미(老 82) | 돈노미(老 74) |
| 움풀디니라(老 87) | 머규마(老 110) |
| 드로리라(朴 39) | 빋교물(朴 88) |
| 사곤(朴 53) | ㅁ로효마(朴 19) |

위의 (4. a~c)의 예들은 앞 形態素의 末音이 i(j) 以外の 母音으로 끝난 경우로서 여기에 i로 始作된 接辭가 連結되면 이 i는 滑音 j로 轉移된다. 이것을 規則으로 보이던 다음과 같다.

$$i \rightarrow j / \left[\begin{array}{c} \text{v} \\ \text{-front} \end{array} \right] + \text{---} \dots \dots \dots (5)$$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 보고 넘어가야 할 것은 뒤(3·2·3.(8))에서 詳論하겠지만 16世紀 國語에서는 Λ, i 의 前後에 母音이 連結될 때는 Λ, i 가 削除되는 것이 普遍的 現象인데도, 여기의 ‘양자+이’ 등의 경우에는 Λ 가 削除되지 않고 그대로 存續하는데, 이 現象은 漢字語에 局限된 現象으로서 이들은 語彙項目에 [-rule(16)]이 明示되어야 할 것이다.

(4.d~e)의 例들은 (4.a~c)의 경우와는 反對로 앞 形態素의 末音이 i 로 끝나고 여기에 $i(j)$ 以外の 母音으로 始作되는 接辭가 添加된 경우로서 이 경우 역시 i 가 滑音化하여 j 로 轉移된다.

이를 規則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i \rightarrow j / - + \left[\begin{array}{c} \text{v} \\ \text{-front} \end{array} \right] \dots \dots \dots (6)$$

이렇게 規則化하고 보니, 이 規則은 앞의 規則(1) $\phi \rightarrow j / \left\{ \begin{array}{c} i \\ j \end{array} \right\} + - \left\{ \begin{array}{c} \text{v} \\ \text{-front} \end{array} \right\}$ 와의 사이에 矛盾이 생기니, 規則(1)을 둘로 分析하여 생각하면, $\phi \rightarrow j / i + - \left[\begin{array}{c} \text{v} \\ \text{-front} \end{array} \right]$ 와 $\phi \rightarrow j / j + - \left[\begin{array}{c} \text{v} \\ \text{-front} \end{array} \right]$ 로 되는데, 後者の 경우는 規則(6)과의 사이에 音聲連結—이틀테면, $i + \left[\begin{array}{c} \text{v} \\ \text{-front} \end{array} \right]$ 과 $j + \left[\begin{array}{c} \text{v} \\ \text{-front} \end{array} \right] -$ 의 差異가 있으므로 問題가 되지 않았지만, 前者의 경우는 規則(7)과 同一한 音聲連結—이틀테면, $i + \left[\begin{array}{c} \text{v} \\ \text{-front} \end{array} \right]$ 인데, 規則(7)에서는 滑音化가 일어나고, 規則 $\phi \rightarrow j / i + - \left[\begin{array}{c} \text{v} \\ \text{-front} \end{array} \right]$ 에서는 音韻添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틀테면, ‘버뜨리+어’의 경우에 前者를 適用하면 ‘버뜨러’가 되고, 後者를 適用하면 ‘*버뜨리어’가 되어 非文法的인 形態가 導出되나, 브리어(使, 朴 15), 브러(下, 老 33), 드리여(留下, 朴 60), 드러(染, 朴 39)가 나타나고 있는 事實을 볼 때 이 두 規則中 하나가 任意的으로 適用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餘他의 大部分의 例에서는 이러한 對立의 例를 찾을 수가 없으므로, 이 두 規則中 어느 하나가 普遍的이고 다른 하나는 例外的인 規則의 適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規則 $\phi \rightarrow j / i + - \left[\begin{array}{c} \text{v} \\ \text{-front} \end{array} \right]$ 와 規則 $i \rightarrow j / - + \left[\begin{array}{c} \text{v} \\ \text{-front} \end{array} \right]$ 의 둘 가운데 어느 것이 더 普遍的일가가 問題가 되겠는데, 筆者의 생각으로는 後者가 더 普遍的이 아닐까 한다. 그 理由는 $j + \left[\begin{array}{c} \text{v} \\ \text{-front} \end{array} \right]$ 의 連結에서, 만약 規則 $i \rightarrow j / - + \left[\begin{array}{c} \text{v} \\ \text{-front} \end{array} \right]$ 의 適用 結果와 같

은 音節縮約이 일어난다면, 그 音節構造는 語幹의 音節主音 v와 音節副音 j 그리고 接辭의 첫 母音 v가 숨겨진 vjv와 같은 三重母音이 構成되는데 16世紀 國語에서 이같은 三重母音은 存在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의 實現은 不可能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두 音節을 維持하면서 j가 後續母音으로 移行되는 過程에서 寄生되는 j를 굳혀서 hiatus를 回遯하는 것이 音節構造上으로 볼 때 順理일 것이다. 그리고 $i + \left[\begin{smallmatrix} v \\ -front \end{smallmatrix} \right]$ 의 경우에는 i가 滑音이 되어 한 音節로 되든지, i가 後續母音으로 移行되는 過移에서 寄生된 音을 固定시켜 半子音 j가 添加되든지 間에 音節構造上으로는 問題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規則 $i \rightarrow j / - + \left[\begin{smallmatrix} v \\ -front \end{smallmatrix} \right]$ 의 適用을 받는 (4. d~e)의 例들을 觀察하면 規則 $\phi \rightarrow j / j + -v$ 의 適用을 받을 수 있음직한 母音 連結이 없는데 比하여, (1. a~d)의 例들에는 規則 $i \rightarrow j / - + \left[\begin{smallmatrix} v \\ -front \end{smallmatrix} \right]$ 의 適用이 可能的 母音 連結이 存在한다. 이러한 事實은 바로 $i + \left[\begin{smallmatrix} v \\ -front \end{smallmatrix} \right]$ 의 경우에는 $i \rightarrow j$ 로 滑音化되는 것이 一般의이고, $j + \left[\begin{smallmatrix} v \\ -front \end{smallmatrix} \right]$ 의 경우는 $j + j + v$ 가 되어 j를 添加시키는 것이 一般의임을 말해 주는 證據가 된다.

이렇게 解釋을 하고 보면, 앞의 (1. a~d)의 例 가운데서 j를 末音으로 가진 形態素들은 規則 $\phi \rightarrow j / j + - \left[\begin{smallmatrix} v \\ -front \end{smallmatrix} \right]$ 의 支配를 받고, i를 末音으로 가진 形態素들은 $i \rightarrow j / + - \left[\begin{smallmatrix} v \\ -front \end{smallmatrix} \right]$ 의 支配를 받는 것이 一般的이었으나 이 경우에도 j가 添加되므로 이 後者의 경우는 例外的인 것으로 取扱함이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語彙項目에서 $\{-rule(6)\}$, $\{+rule(8)\}$ 이 明示되어야 한다.

다음에 規則 (1)의 修正된 規則을 보인다.

$$\phi \rightarrow j / j + - \left[\begin{smallmatrix} v \\ -front \end{smallmatrix} \right] \dots\dots\dots(7)$$

$$\phi \rightarrow j / i \left[\begin{smallmatrix} + \\ \text{小數의} \\ N. V. A. \end{smallmatrix} \right] + - \left[\begin{smallmatrix} v \\ -front \end{smallmatrix} \right] \dots\dots\dots(8)$$

그리고 앞의 規則 (5)와 規則 (6)은 鏡像의 規約을 適用하면 다음과 같이 統合된다.

$$i \rightarrow j \% \left[\begin{smallmatrix} v \\ -front \end{smallmatrix} \right] + - \dots\dots\dots(9)$$

(5) o, u → w

- | | |
|--------------|--------------|
| a. 외화(老 8) | 브리왓다가(老 124) |
| 와(老 114) | 나와(朴 105) |
| 왓느이다(朴 117) | 왓는다(朴 133) |
| 비화(老 9) | |
| b. 기들워(老 61) | 논힐취(老 106) |
| 대워(老 123) | 벼워(老 70) |
| 머물워(老 112) | 브리워(老 94) |
| 취워(息, 老20) | 어올워(朴 28) |
| 메워(朴 38) | 드리웠고(朴 57) |
| 애워(老 91) | 마웠느니라(朴 37) |

위의 (5. a)와 (5. b)는 각각 o, u로 끝난 用言의 語幹에 副詞形語尾 a/ə가 結合되면 o, u가 滑音으로 바뀌어 wa, wa가 된다.

그런데 앞의 規則 (3)에서 보면, c $\begin{bmatrix} o \\ u \end{bmatrix}$ + $\begin{bmatrix} a \\ ə \end{bmatrix}$ 의 音聲連結에서는 w가 添加되었는데, 여기의 例들 中에 h $\begin{bmatrix} o \\ u \end{bmatrix}$ + $\begin{bmatrix} a \\ ə \end{bmatrix}$ 의 音聲連結이 나타나 [이들]例는 w가 添加되어야 마땅할 듯하나 오히려 o, u가 w로 滑音化되었음을 볼 때, 16世紀 國語에서 이 h音은 子音으로서의 性格이 매우 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을 規則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begin{bmatrix} o \\ u \end{bmatrix} \rightarrow w/(h) -] V. A. + \begin{bmatrix} a \\ ə \end{bmatrix} \dots\dots\dots(10)$$

3·2·3. 母音削除

Hiatus回避를 위해 削除되는 母音으로는 i, a, ə, ʌ, i 등이 있는데, 다음에서는 이들의 削除現象을 具體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6) i 削除

- | | |
|--------------|------------|
| a. 우리(老 107) | 고기(老 43) |
| 가히(老 109) | 가지(老 81) |
| 구서(老 62) | 경미오(老 18) |
| 고기라(老 40) | 드리러니(老 77) |
| 훈가지로다(老 18) | |
| b. 구의(老 101) | 막매(老 65) |
| 모시빅(老 139) | 술워(老 133) |

늑대새(老 125)	형제라하니(老 31)
나그네니(老 36)	최히어늘(老 55)
기피라(老 71)	신희라도(朴 20)
흐채라(朴 51)	마애오(朴 78)
보빅니(朴 86)	술갈나히라(朴 89)
설펠라(朴 97)	

위의 (6. a)의 예는 i를 末音으로 한 形態素에 i로 始作되는 接辭(主格助詞 또는 叙述格助詞)가 連結되는 경우로서 이 때는 接辭의 i가 削除된다. 그리고 (6. b)의 예는 j로 末音을 삼는 形態素에 i로 始作되는 接辭가 連結된 것인데, 이 경우 역시 接辭의 i가 削除된다.

이를 規則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i \rightarrow \phi / \left[\begin{matrix} i \\ j \end{matrix} \right] + \dots \dots \dots (11)$$

(7) a·ə 削除

a. 가(老 141)	맞나(朴 20)
갓다니(老 89)	드러가(老 87)
사(老 24)	
b. 학(老 49)	전너(老 29)

위의 (7. a)의 예는 a로 末音 삼는 形態素에 a로 始作되는 接辭(副詞形語尾, 過去時制補助語幹 등)가 連結된 경우이고, (7. b)는 ə+ə의 경우인데, 이 때는 各各 同母音의 連結이 되어 어느 한 母音이 削除되는데, 앞위의 母音中 어느 것이 削除되느냐가 問題가 된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 語幹末母音이 a, ə 以外の 母音인 語幹이 副詞形語尾 a/ə를 取하는 樣相을 살펴 보면,

$$i + \left\{ \begin{matrix} a \\ ə \end{matrix} \right\} \rightarrow \begin{cases} \textcircled{1} j + \left\{ \begin{matrix} a \\ ə \end{matrix} \right\} \\ \textcircled{2} i + j + \left\{ \begin{matrix} a \\ ə \end{matrix} \right\} \end{cases}$$

$$A + \left\{ \begin{matrix} a \\ ə \end{matrix} \right\} \rightarrow \phi + \left\{ \begin{matrix} a \\ ə \end{matrix} \right\}$$

$$i + \left\{ \begin{matrix} a \\ ə \end{matrix} \right\} \rightarrow \phi + \left\{ \begin{matrix} a \\ ə \end{matrix} \right\}$$

$$o + \left\{ \begin{matrix} a \\ ə \end{matrix} \right\} \rightarrow \begin{cases} \textcircled{1} w + \left\{ \begin{matrix} a \\ ə \end{matrix} \right\} \\ \textcircled{2} o + w + \left\{ \begin{matrix} a \\ ə \end{matrix} \right\} \end{cases}$$

$$u + \begin{Bmatrix} a \\ \text{ə} \end{Bmatrix} \rightarrow \begin{cases} \textcircled{1} w + \begin{Bmatrix} a \\ \text{ə} \end{Bmatrix} \\ \textcircled{2} u + w + \begin{Bmatrix} a \\ \text{ə} \end{Bmatrix} \end{cases}$$

$$j + \begin{Bmatrix} a \\ \text{ə} \end{Bmatrix} \rightarrow j + j + \begin{Bmatrix} a \\ \text{ə} \end{Bmatrix}$$

로 되어 語幹末母音이 削除되든지 혹은 滑音化되었으나 語尾 a/ə는 아무런 變化를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begin{Bmatrix} a \\ \text{ə} \end{Bmatrix} + \begin{Bmatrix} a \\ \text{ə} \end{Bmatrix}$ 의 경우에도 위의 경우를 類推하여 語幹의 a·ə가 削除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들을 規則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begin{Bmatrix} a \\ \text{ə} \end{Bmatrix} \rightarrow \phi / - \text{] V. A. + } \begin{Bmatrix} a \\ \text{ə} \end{Bmatrix} \dots\dots\dots(12)$$

(8) $\Lambda \cdot i$ 削除

- | | |
|---------------------|-----------------|
| a. 어엿브+이→어엿비(老 3) | 쓰+어→척(老 85) |
| 쓰+어→씨(老 7) | 투+아→타(老 29) |
| 니르+어→닐어(老 132) | 뵤+아→빠(老 42) |
| ㄱㄱ+을→곶을(老 46) | ㅎ+오려→호려(老 129) |
| ㄱㄱ+의→곶의(老 44) | 니르+오더→닐오더(老 73) |
| 아스+이오→아시오(老 31) | 몬ㅎ+오라→몬호라(老 68) |
| 말투+오리히다→말토리히다(朴 16) | 쁘+어→뻬(朴 50) |
| 투+앗고→탓고(朴 58) | 쁘+우매→뻬매(朴 63) |
| 베프+어→베퍼(朴 100) | |

- | | |
|--------------|------------|
| b. 십수에(朴 56) | 변수엿(朴 56) |
| 딩즈애(朴 58) | 연좌수에(朴 55) |

위의 例(8. a)는 末音이 $\Lambda \cdot i$ 로 된 形態素에 母音(單母音, 二重母音, 三重母音)으로 始作되는 形態素가 連結될 때는 $\Lambda \cdot i$ 가 削除됨을 보여 준다.

이들 規則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begin{Bmatrix} \Lambda \\ i \end{Bmatrix} \rightarrow \phi / - + (\begin{Bmatrix} j \\ w \end{Bmatrix}) v(j) \dots\dots\dots(13)$$

(8. b)의 경우는 그 音聲連結이 $\Lambda + v$ 로 되어 規則(13)의 支配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그 適用을 받지 않는 例外들로서 이들은 漢字語라는 特色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語彙項目에서[-rule (13)]의 明示가 必要하다.

- | | |
|--------------------|--------------|
| c. 人家+으로→人家로(老 87) | 나+올→날(老 134) |
|--------------------|--------------|

훈필에+은→훈필엔(老 27)	설어주+음→설어줌(老 134)
가+올가→갈가(老 3)	쉬+으며→쉬며(老 54)
주+으리니→주리니(老 107)	두+으면→두면(老 21)
ㅎ+으쇼셔→ㅎ쇼셔(老 127)	오+으라→오라(老 81)
ㅎ+으시니→ㅎ시니(老 11)	사+으라→사라(老 40)
의오+은→의온(老 8)	늘그시+은→늘그신(老 103)
물ㅎ+올→물홀(老 104)	
d. 니가읏(朴 5)	쇠가읏(朴 5)
휘의(朴 52)	강서의서(朴 54)
효도의(朴 100)	부모의(朴 115)
채주의손터(朴 121)	나그내의(老 57)
더의(老 83)	

위의 (8.c)의 例들은 母音(單母音, 二重母音, 三重母音)으로 끝난 形態素에 $\Lambda \cdot i$ 로 始作되는 接辭(助詞, 語尾 등)가 連結될 때는 接辭의 $\Lambda \cdot i$ 가 削除된다,

그런데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이들 接辭는 子音으로 끝난 形態素 뒤에서는 $\Lambda \cdot i$ 가 나타나고, 母音으로 끝난 形態素 뒤에서는 이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들 $\Lambda \cdot i$ 를 子音衝突을 막아 音調를 고르게 하기 위한 媒介母音은 調音素라고 불려 왔으나, “ $닉+거든 \rightarrow$ 닉거든(老 42), $닉+디 \rightarrow$ 닉디(老 12), $높+고 \rightarrow$ 높고(高, 老 77), $돛+과 \rightarrow$ 돛과(席, 老 137), $반+만 \rightarrow$ 반만(半, 老 42), $듣+좁+고 \rightarrow$ 듣좁고(老 5), ……” 등의 경우 역시 子音+子音의 連結인데도 調音素가 添加되지 않는 事實을 볼 때 이 $\Lambda \cdot i$ 는 調音素라기 보다는 원래부터 接辭에 包含되어 있던 要素로 생각되며, 오히려 母音과의 結合 過程에서 發生되는 hiatus를 回避하기 위해서 母音 $\Lambda \cdot i$ 가 削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8.c)의 例들은 다음과 같은 規則의 支配를 받는다고 하겠다.

$$\left\{ \begin{array}{c} \Lambda \\ i \end{array} \right\} \rightarrow \phi / \left(\left\{ \begin{array}{c} j \\ w \end{array} \right\} \right) v(j) + \dots \dots \dots (14)$$

(8.d)의 例들은 體言에 冠形格助詞가 連結된 것으로 그 音聲連結이 $v+ij$ 로 되어 있으므로 規則(14)의 適用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의 適用을 받지 않는 例外的인 것으로, 이 “ij”는 그 語彙項目에 [-rule(14)]이 明示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의 規則 (13)과 (14)는 鏡像規約(mirror image convention)에
依해 다음과 같이 統合된다.

$$\left\{ \begin{matrix} \Lambda \\ i \end{matrix} \right\} \rightarrow \phi \% \left(\left\{ \begin{matrix} j \\ w \end{matrix} \right\} \right) v(j) + \text{---} \dots\dots\dots (9f)$$

4. 結 論

以上에서 考察한 hiatus迴避現象을 위한 規則들의 適用 順序를 매기면 다
음과 같이 된다.

$$(10) \left[\begin{matrix} o \\ u \end{matrix} \right] \rightarrow w/(h) \text{---}] V. A. + \left[\begin{matrix} a \\ e \end{matrix} \right]$$

$$(3) \phi \rightarrow w/c \left[\begin{matrix} o \\ u \end{matrix} \right]] V. A. + \text{---} \left[\begin{matrix} a \\ e \end{matrix} \right] \text{ (opt)}$$

$$(4) \phi \rightarrow \left\{ \begin{matrix} n \\ l \end{matrix} \right\} /V] N. + \text{---} \left\{ \begin{matrix} \Lambda \\ i \end{matrix} \right\} \left[\begin{matrix} n \\ l \end{matrix} \right] \neq$$

$$(15) \left\{ \begin{matrix} \Lambda \\ i \end{matrix} \right\} \rightarrow \phi \% \left(\left\{ \begin{matrix} j \\ w \end{matrix} \right\} \right) v(j) + \text{---}$$

$$(7) \phi \rightarrow j/j + \text{---} \left[\begin{matrix} v \\ \text{-front} \end{matrix} \right]$$

$$(11) i \rightarrow \phi / \left\{ \begin{matrix} i \\ j \end{matrix} \right\} + \text{---}$$

$$(9) i \rightarrow j \% \left[\begin{matrix} v \\ \text{-front} \end{matrix} \right] + \text{---}$$

$$(8) \phi \rightarrow j/i] \text{小數의 } N. V. A + \text{---} \left[\begin{matrix} v \\ \text{-front} \end{matrix} \right]$$

$$(12) \left[\begin{matrix} a \\ e \end{matrix} \right] \rightarrow \phi / \text{---}] V. A. + \left[\begin{matrix} a \\ e \end{matrix} \right]$$

$$(2) \phi \rightarrow j/\Lambda] \text{stem}[\text{HA}] + \text{---} a$$

아래에 이들 規則이 適用되어 表面形을 導出하는 過程을 보인다.

規則 基底形	(10)	(3)	(4)	(15)	(7)	(11)	(9)	(8)	(12)	(2)	表面形
적+아	—	—	—	—	적+j +아	—	—	—	—	—	적야
뷔+운	—	—	—	—	뷔+j +운	—	—	—	—	—	뷔운
브리+어	—	+	+	—	—	—	—	브리+ j+어	—	—	브리여
스이+에	—	—	—	—	—	—	—	스이+ j+에	—	—	스이에
아휘+아	—	—	—	—	아휘+ j+아	—	—	—	—	—	아휘야
항+아	—	—	—	—	—	—	—	—	—	항+j +아	항야
보+아	—	보+w +아	—	—	—	—	—	—	—	—	보와
후+애	—	—	—	—	—	—	—	—	—	—	후애
나+은	—	—	나+n +은	—	—	—	—	—	—	—	나논
너+을	—	—	너+l +을	—	—	—	—	—	—	—	너를
적+이	—	—	—	—	—	—	적+j +이	—	—	—	적
손조+이	—	—	—	—	—	—	손조 +j	—	—	—	손지
브므려 +어	—	—	—	—	—	—	브므르 +어	—	—	—	브므려
오+아	w+아	—	—	—	—	—	—	—	—	—	와
빅호+오	빅호w +아	—	—	—	—	—	—	—	—	—	빅화
우리+이	—	—	—	—	우리 +이	—	—	—	—	—	우리
나그내 +이니	—	—	—	—	나그내 +니	—	—	—	—	—	나그내 니
가+아	—	—	—	—	—	—	—	—	가+아	—	가
뜬+아	—	—	—	뜬+아	—	—	—	—	—	—	타
동희+ 으로	—	—	—	동희 +로	—	—	—	—	—	—	동희로
가+은	—	—	—	가+은	—	—	—	—	—	—	간

參 考 文 獻

- 老乞大上, 1974, 大提閣.
朴通事上, 1974, 大提閣.
小學診解(宣祖版), 1974, 大提閣.
金完鎭, 1971, “音韻現象과 形態論的 制約”(國語音韻體系的 研究에 收錄), 一潮閣.
金亨奎, 1963, 改訂國語學概論, 一潮閣.
李基文, 1961, 國語史概說, 民衆書館.
1972, 國語音韻史研究, 韓國文化研究所.
이병진, 1976, 현대 한국어의 생성 음운론, 일지사.
李崇寧, 1945, “國語의 Hiatus와 子音 發達에 對하여”(音韻論研究에 收錄), 民衆書館.
1954, “十五世紀의 母音體系와 二重母音의 Kontraktion의 發達에 對하여”(音韻論研究에 收錄), 民衆書館.
田相範, 1977, 生成音韻論, 塔出版社.
崔世和, 1977, 15世紀 國語의 重母音研究, 亞細亞文化社.
許 雄, 1975, 國語音韻學<改新稿版>, 正音社.
Chomsky, N. and M.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Harper & Row, Publishers, New York.
D. Jones, 1957,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W. Heffer & Sons Ltd., Cambridge.
L. H. Hyman, 1975, Phonology: theory and analysis, Holt, Rinehart and Winston.
S. A. Schane, 1973, Generative Phonology,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Sang-Buom Cheun, 1975, Phonological Aspects of Late Middle Korean, Pan Korea Book Corporation.
W. Mayerthaler, 1974, Einführung in die generative Phonologie, Max Niemeyer Verlag Tübingen